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목　　차 】

Ⅰ. 개 요 ····· 1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중점투자 방향 ····· 1

2.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4

Ⅱ. 검토의견 ····· 6

1.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1134-402) ····· 6

가. 사업개요 ····· 6

나. 검토사항 ····· 7

2. 유엔 분담금 납부 사업 ····· 10

가. 사업개요 ····· 10

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 ····· 11

다. 검토사항 ····· 12

3. ODA 사업(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 ····· 15

가. 사업개요 ····· 15

나. 총괄 검토 ····· 17

다. 세부사업별 검토 ····· 21

※ [참고자료 1] 베트남 정부조직 개편 ····· 51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Ⅰ. 개 요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중점 투자 방향

최근 4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0% 내외로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의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에 비하여 국세 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소비·투자 촉진과 건설투자 확대를 통하여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민생 회복을 도모하며, 세입 경정으로 국세 수입 감소를 반영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경기 진작 15.2조원, 민생 안정 5.0조원, 세입 경정 10.3조원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기 진작**을 위하여 ①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0.3조원, ②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건설 예산 2.7조원, ③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AI 확산 예산 1.2조원 등을 편성하였음.

둘째, **민생 안정**을 위하여 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② 구직급여 지원인원 확대 및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③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 및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 등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0.6조원 등을 편성하였음.

[추경안 주요내용]

추가경정 예산안 (30.5조원)	**1 경기 진작**	**15.2조원**
	▪ 소비 여력 보강	11.3조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2 민생 안정	**5.0조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원
	▪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원
	3 세입경정	**10.3조원**

자료: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 25. 6..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제1회 추경 대비 24.0조원 증가한 110.4조원으로, 국가채무는 제1회 추경 대비 19.8조원 증가한 1,300.6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임.

2.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번 추경안은 2025년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8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감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증액사업이나 신규 세부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음.

총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총지출은 제1회 추경 대비 1.4%(605억원) 감액된 4조 2,346억이 편성됨.

<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총수입-총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A)	2025년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
총수입	333,392	333,392	333,392	-	-
총지출	4,278,804	4,295,079	4,234,573	△60,506	△1.4

추경예산안 변동 내역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ⅰ) ODA 관련 5개 세부사업(△280억원), ⅱ) 국제기구 분담금 관련 2개 세부사업(△259억원), ⅲ)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관련 1개 세부사업(△6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A)	2025년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6,854	6,854	237	△6,617	△96.5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	123,580	123,580	114,191	△9,389	△7.6
유엔 PKO예산 분담금 납부(ODA)	216,784	216,784	200,284	△16,500	△7.6
베트남(ODA)	57,293	57,293	52,293	△5,000	△8.7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3,648	83,648	78,648	△5,000	△6.0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78,966	178,966	173,966	△5,000	△2.8
탄자니아(ODA)	17,931	17,931	9,931	△8,000	△44.6
글로벌연수(ODA)	67,973	67,973	62,973	△5,000	△7.4

Ⅱ. 검토의견

1.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1134-402)

가. 사업개요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은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다자 정상급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략적 중요성이 큰 중앙아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68억 5,400만원에서 66억 1,700만원(△96.5%)이 감액된 2억 3,700만원임.

<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본예산(A)	2025년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6,854	237	△6,617	△96.5
준비기획단 운영	746	-	△746	△100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237	237	-	-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	5,871	-	△5,871	△100

나. 검토사항

□ 정상회의 추진 일정에 따른 준비계획의 체계적 이행 필요

제2회 추경예산안은 내역사업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를 위한 2억 3,700만원을 제외하고, '준비기획단 운영' 및 '정상회의·부대행사 개최'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음.

이는 2025년 개최 예정이던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가 우리측 국내 사정과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의 외교 일정으로 인해 개최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5년 중 개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2026년으로 순연되었기 때문임.

외교부는 당초 2025년 1분기 중 준비기획단을 출범시켜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회의 및 제17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의제 및 성과사업을 발굴·협의하며, 행사대행 및 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정상회의가 2026년으로 순연됨에 따라, 준비기획단 출범과 부대행사 준비 등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 일정 전반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 집행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외교부는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내역사업 예산은 유지하였는데, 이는 차년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금년 하반기 실무급 및 고위급 교류, 사전

협의와 간담회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특히 하반기에는 한-중앙아 협력포럼, 유엔총회 계기 양자 접촉, 차관급 정책협의회 등 주요 외교 일정[1]이 예정되어 있어 일정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2026년 예산 편성 시에는 해당 내역사업 예산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힘.

<2025년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일반수용비	60	사무용품 구입 및 수수료·자문료 등
임차료	24	회의·행사 관련 임차
여비	103	관계부처 업무협의 및 중앙아 국가들과의 사전협의 출장
사업추진비	50	각종 업무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합계	237	

자료: 외교부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의 유지 결정은 이러한 하반기 외교일정과 실무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으나, 실제 집행 시기와 내용이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됨.

한편, 첫 EU-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및 제2차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2025년에 연이어 개최되는 등 주요국과 중앙아시아 간 정상급 외교가 활

1) (정상급) 카자흐스탄, 금년 하반기 고위인사 방한 희망 중
(장관급) △제18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11월말, 우즈벡) 및 동 계기 중앙아 5개국과의 양자회담
△제2차 한-우즈벡 외교장관 전략대화(11월말, 우즈벡)
△9월 유엔총회 계기 양자 접촉 등
(기타) 차관급 정책협의회 등

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이어 대내외에 표방한 바 있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개최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보다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유엔 분담금 납부 사업

가. 사업개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유엔 분담금 납부 사업은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2131-401)’와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2131-402)’ 사업임.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본부 운영, 주요 회의체 활동 등에 필요한 유엔 정규예산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35억 8,000만원에서 93억 8,900만원(△7.6%)이 감액된 1,141억 9,100만원임.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 PKO)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67억 8,400만원에서 165억원(△7.6%)이 감액된 2,002억 8,400만원임.

< 유엔 분담금 납부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A)	2025년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	123,580	123,580	114,191	△9,389	△7.6
유엔 PKO예산 분담금 납부(ODA)	216,784	216,784	200,284	△16,500	△7.6

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 사업은 예산 편성 시보다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규모가 축소되었고, 확정된 분담금을 상반기 중에 이미 납부 완료한바, 납부 완료한 분담금 규모에 맞추어 추경안을 산정하였음.

< 산출 세부 근거(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 >

본예산	[{'25년도 유엔 정규예산 예상액(37.8억불) x 우리 분담률 예상액(2.574%)} - 직원공제액(약 8백만불)] x 환율(1,380원/달러) = 89,550,725불 x 환율(1,380원/달러) = 123,580백만원
추경안	(UN 청구액) {'25년도 유엔 정규예산(약 37.2억불) x 우리 분담률(2.349%)} - 직원공제액(약 8백만불) = 79,849,765불 (위 청구액에 대한 실제 납부액) {26,000,000불 x 환율(1,380원/달러, 외평기금 이용)} + {53,849,765불 x 시중환율(1,454원/달러)} = 114,188백만원

분담금 규모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 말 확정된 유엔 정규예산과 우리나라의 분담률이 예산안 편성 시점에 예상한 수치보다 낮기 때문임.

예산 편성 당시 유엔 정규예산은 최근 5년간 정규예산 평균 증가율(5.2%)를 반영하여 37.8억불로 예상하였으나, 확정된 예산은 37.2억불임. 분담률은 3년 단위로 결정되는데, 2025~2027년도 분담률은 2.347%로, 2022~2024년도 분담률 2.574%에 비하여 낮게 결정되었음.[2)]

< 최근 5년간 유엔 정규예산 및 우리나라 분담률 현황 >

(단위: 억불,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상	확정
정규예산	32.08	31.2	34.0	35.9	37.8	37.2
우리나라 분담률	2.267	2.574	2.574	2.574	2.574	2.349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 사업 또한 우리 분담율이 2.349%로 낮아짐에 따라 납부 예상액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되었음.

< 산출 세부 근거(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 >

본예산	{'24/25년도 유엔 PKO예산 예상액(61억불) x 우리 분담률 예상액(2.574%)} x 환율(1,380원/달러) = 1.57억불 x 환율(1,380원/달러) = 216,784백만원
추경안	{'25/26년도 유엔 PKO예산 예상액(61.7억불) x 우리 분담률 예상액(2.349%)} x 환율(1,380원/달러) = 1.57억불 x 환율(1,380원/달러) = 200,284백만원

다. 검토사항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 사업의 경우 2025/26년도 유엔PKO 예산이 6월 말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감액 규모를 추가 확정할 수 있을것임.[3]

2) 분담률은 국민소득(GNI), 외채요소 등에 의해 결정됨.

3) 유엔 정규예산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도 말에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것에 반하여, 유엔 PKO예산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예산이 6월 중순 현재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26 유엔 PKO 예산을 61.7억불로 예상하였는데, 유엔의 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유엔 PKO 예산의 결정 절차는 ① 유엔 사무총장 예산안 제출(3~4월), ② 행정예산자문위원회(ACABQ)[4] 심사(4~5월), ③ 총회 제5위원회(Fifth Committee)[5] 심의(5~6월), ④ 유엔 총회 본회의 승인(6월 말)에 따라 진행되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A/79/788 문서[6]에서 2025/26년도 유엔PKO 예산안을 2024/25년도 승인 예산보다 9,460만불(1.7%) 감소한 약 55억불로 추산하고 있음.

< 2019/20 – 2025/26 회계연도 유엔PKO 예산 개요>

(단위: 억불)

구분	실제 지출(Acctual)					승인 예산 (Approved)	예산안 (Proposed)
회계연도	19/20	20/21	21/22	22/23	23/24	24/25	25/26
금액	67.12	66.10	63.94	63.83	61.87	55.92	54.98

자료: A/79/788, p. 51를 바탕으로 재구성

4)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 개요>

설립	1946년 유엔총회 결의 제14(I)호에 따라 총회 부속기관(subsidiary organ)으로 설립
기능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검토 및 총회 보고, ▲유엔의 모든 행정 및 예산 문제에 대해 총회에 자문 제공, ▲총회를 대신하여 유엔 전문기구 예산 검토, ▲예산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및 총회 보고
구성	총 21명의 위원(아태지역 5명, 아프리카 5명, 동유럽 3명, 남미카리브 4명, 서구 및 기타 4명)

5) 유엔의 행정 및 예산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유엔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총회에 보고함.

6) 'Overview of the financing of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budget performance for the period from 1 July 2023 to 30 June 2024 and budget for the period from 1 July 2025 to 30 June 2026'

또한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ACABQ는 A/79/724 문서(2025.4.)[7]에서 사무총장에게 자원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음.[8]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2025/26년도 유엔 PKO 예산은 정부가 예상한 61.7억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엔PKO예산안의 심의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 규모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Overview of the financing of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8) 위의 글, 19쪽.

3. ODA 사업(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사업개요

‘ODA 사업비’[9]는 우리나라 공적 개발원조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외교정책을 통합·조정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중견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외교력 향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8개의 단위사업과 4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ODA 사업비는 본예산(1조 9,670억 1,400만원) 대비 280억 원(△1.4%) 감소한 1조 9,390억원 1,400만원으로 감액·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ODA 사업비 중 추경 대상은 3개의 단위사업 내 5개 세부사업으로 전부 감액에 해당함.

추경 대상인 세부사업은 ① 베트남(2431-401), ② 아시아태평양 일반협력 국가그룹(2431-411), ③ 아프리카 일반협력 국가그룹(2432-403), ④ 탄자니아(2432-406), ⑤ 글로벌연수(2435-402)임.

9) 외교부 내 예산 편성 시 ODA는 ① 국제기구분담금(2100) 프로그램 내의 모든 세부사업, ② 국제개발협력(2400) 프로그램 내의 모든 세부사업, ③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2231-401)’ 세부사업을 포함하나, 이하에서는 국제개발협력(2400) 프로그램에 한정함.

< 2025년도 ODA사업비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5년 본예산	'25년 제1회 추경(A)	'25년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
합계(외교부전체)	4,278,804	4,295,079	4,234,573	△60,506	△1.4
ODA(전체)	1,967,014	1,967,014	1,939,014	△28,000	△1.4
ODA(추경대상)	405,811	405,811	377,811	△28,000	△6.9
베트남(ODA)	57,293	57,293	52,293	△5,000	△8.7
베트남 꽝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건립사업	4,271	4,271	1,271	△3,000	△70.2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습지 생태계 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 향상 지원 사업	2,355	2,355	355	△2,000	△84.9
아시아태평양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83,648	83,648	78,648	△5,000	△6.0
피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3,433	3,433	2,433	△1,000	△29.1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	3,380	3,380	2,380	△1,000	△29.6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효과성제고비	18,219	18,219	15,219	△3,000	△16.5
아프리카태평양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178,966	178,966	173,966	△5,000	△2.8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2,710	2,710	1,210	△1,500	△55.4
아프리카지역 사업 효과성제고비	10,951	10,951	7,451	△3,500	△32.0
탄자니아(ODA)	17,931	17,931	9,931	△8,000	△44.6
탄자니아 도도마주 보건의료정보체계 (GoT-HoMIS) 확산 사업	3,085	3,085	1,485	△1,600	△51.9

구 분			'25년 본예산	'25년 제1회 추경(A)	'25년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
		탄자니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사업	3,278	3,278	878	△2,400	△73.2
		탄자니아 중학교 STEM 모델학교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중등교육 증진사업	4,725	4,725	2,125	△2,600	△55.0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	1,690	1,690	290	△1,400	△82.8
	글로벌연수(ODA)		67,973	67,973	62,973	△5,000	△7.4
	국별연수		30,384	30,384	27,384	△3,000	△9.9
	다국가연수		6,105	6,105	4,105	△2,000	△32.8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괄 검토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2400)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무상원조를 실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데, 한국의 ODA 예산 증가 추세에 따라[10] 동 프로그램의 예산 또한 2016년 6,870억원에서 2025년 1조 9,670억원으로 10년 동안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동 프로그램의 집행율이 2023년 96.1%, 2024년 96.2% 수준으로 이전 7년간 평균 집행율인 99.3%에 비하여 낮아진 상황에서, 본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절대적인 불용액은 2022년 45억 7,900만원에서 2024년 742억 3,000만

10) 2025년 정부 전체의 ODA 예산은 6조 5,010억원으로,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목표를 5년 앞당겨 조기 달성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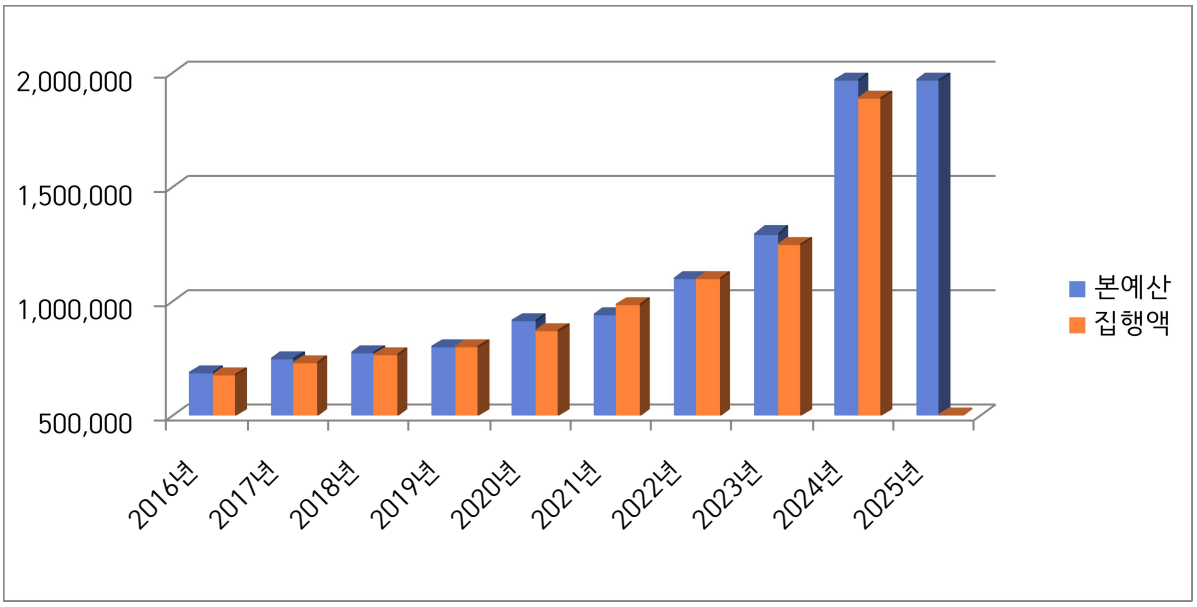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2025년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본예산 (A)	687,090	748,663	770,538	802,372	911,970	943,475	1,101,557	1,297,850	1,968,035	1,967,014
집행액 (B)	680,943	730,151	764,208	800,049	869,317	983,541	1,101,120	1,247,771	1,893,806	–
불용액	6,152	18,512	14,337	2,323	5,247	3,684	4,579	50,110	74,230	–
B/A	99.1	97.5	99.2	99.7	95.3	104.2	100.0	96.1	96.2	–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프로그램의 올해 예산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된 가운데, ODA 사업의 특성상 수원국의 현지 사정과 같은 위험 요소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불용 발생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동 프로그램 사업비 중 280억원을 감액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됨.

감액 편성한 세부사업의 2024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해당 세부사업들에서 타 세부사업으로의 조정, 미교부[11], 불용이 발생하였음. 다만, 탄자니아 사업과 글로벌연수 사업의 경우, 지난해 미집행된 금액에 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분의 규모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나 올해 집행상 특이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편성 사업의 2024년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2024								2025	
	본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액 (A)	미교부액 (B)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C)	A+B+C	본 예산액	추경 감액분
베트남	49,646	906	△4,464	△3,314	42,774	41,413	1,361	△9,139	57,293	△5,000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62,841	5,849	△338	△4,548	63,804	60,440	2,315	△7,201	83,648	△5,000
아프리카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187,826	4,951	-	△10,375	182,402	174,739	5,978	△16,353	178,966	△5,000
탄자니아	18,927	-	-	△1,946	16,981	16,448	533	△2,479	17,931	△8,000
글로벌 연수	67,378	404	-	△416	67,366	63,889	2,262	△2,678	67,973	△5,00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서 외교부와 코이카에 대하여 ODA 예산의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2025. 4. 30. 기준으로 조치완료 하였다고 보고하였음.[12] 그럼에도

11) 미교부는 기획재정부가 코이카로 예산을 교부하지 않을 것을 의미함.

2025년에도 추경을 통해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ODA 사업비 약 280억원을 감액 편성한 점을 감안할 때, 외교부와 코이카는 집행 가능 수준에 기반한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과 계획 수립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ODA 확대 목표를 5년이나 앞당겨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전략 수립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양적 성장에 우선을 둔 추진 방식으로 인하여 ODA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질적 성장을 포함한 정교하고 내실 있는 전략 마련이 요구됨.

12) < ‘ODA 예산 조정 최소화 필요’ 관련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32) 국가별 협력사업(ODA) 예산의 조정 최소화 필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일부 국가별 협력사업(ODA)은 전용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전액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낮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연도 내 집행가능한 금액을 추계하여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과도한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것
시정요구 유형	주의
조치결과	○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면밀한 사업기획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형성조사’ 제도 개선 및 규정 개정 조치 ○ 조치완료일 : 2025년 2월 26일
조치상황 (’25. 4. 30.)	조치완료

자료: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정부, 2025. 5.

다. 세부사업별 검토

(1) 베트남(ODA)

베트남(ODA) 사업은 32개 프로젝트 사업과 3개 개발컨설팅(Deep)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중 2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감액 사유 등은 다음과 같음.

□ 베트남 꽝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사업

'베트남 꽝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사업'은 꽝찌성에 지역사회 기반 장애재활센터를 구축하여 재활·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이며[13] 총 사업예산은 1,200만불임.

사업계획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분담사항은 ㅇ장애 재활센터 신축, ㅇ재활훈련 센터 기자재 지원, ㅇ재활 치료사 양성 및 직업재활 역량 강화, ㅇ지역 재활센터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및 인지제고, ㅇ장애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2억 7,100만원에서 30억원(70.2%)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유는 수원국의 조직개편[14]에 따라 장애 재활센터 신축 등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순연되고 있기 때문임.

13) 당초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였으나, 사업 순연으로 인하여 올해 5월 사업 종료 시점을 2028년까지로 연장하였음.

14) 베트남은 올해 2월 20일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결의안을 통과하여, 기존 22개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을 17개로 축소하였고, 지방 행정 조직 또한 통·폐합 되었음. 이로 인하여 동 사업의 베트남측 주관기관이 꽝찌성 노동보훈사회국에서 보건국으로 변경되었음. [참고자료 1] 베트남 정부조직개편

< 베트남 꽝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사업 감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감액 사유
4,271	1,271	△3,000	△70.2	ㅇ **(수원국 조직개편으로 과업순연)** 베트남 지방정부 개편에 따라, 사업수원부처가 꽝찌성 노동보훈사회국(DOLISA)에서 꽝찌성 보건국(DOH)으로 변경되면서 시공 관련 절차 지연 ㅇ 담당 조직의 기능 전환과 인력 이동 등 베트남 거버넌스 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불가항력적 변수로 금년도 계획 대비 순연이 불가피한바 감액 신청

자료: 외교부

동 사업에서 핵심이 되는 종합재활센터 설립은 현재 설계 승인 단계에 있는데, 외교부는 수원국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설계 승인을 포함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순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아 건축비를 포함한 본예산의 집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만, 집행계획에 따른 시공 시작 시점은 2024년 1월로,[15] 수원국이 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부터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외교부와 코이카는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를 보다 면밀히 하여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습지 생태계 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 향상 지원 사업**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습지 생태계 관리 및

15) 베트남 꽝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사업 집행계획(안), 2022.1. 코이카 p. 78

지역주민 소득 향상 지원 사업'은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16]의 산림과 습지생태계를 보존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예산은 1,200만불임.

사업계획서에 따른 우리 정부의 주요 분담사항은 ㅇ전문가 파견, ㅇ현지 공무원 초청연수 등 역량강화, ㅇ재조림 등 산림회복, ㅇ산림관리 및 산림회복을 위한 기자재 지원, ㅇ지역주민 생계지원 등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3억 5,500만원에서 20억원(84.9%)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유는 수원국인 베트남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순연되었기 때문임.

<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습지 생태계 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 향상 지원 사업 감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감액 사유
2,355	355	△2,000	△84.9	ㅇ **(수원국 조직개편으로 과업순연)** 동 사업 수원기관인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가 베트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와 통합됨. ㅇ 담당부서 개편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베트남 측 체계 구축 및 행정절차 지연 및 이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사업 순연 불가피한바 감액 신청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이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2024년에 사업 범위 및 양국 간 분담사항을 확정하는 '협의의사록(Record of

16) 메콩 강 하류의 삼각주 지형으로, 베트남의 주요 쌀 생산지이며 총 면적은 약 45,000km2임.

Discussion)'[17]을 체결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2024년부터 논의되어 온 베트남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난해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격적인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함.[18]

다만, 현재 사업 지연 사유가 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바, 사업 정상화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액 편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17) 「국별협력사업규정」
제5조(주요 사업문서)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사업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은 협력단과 수원기관 간 사업추진 세부 사항을 정하여 체결하는 문서로, 사업범위 및 양국간 분담사항 등을 포함한다.

18) 2025년도 상반기에는 기초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초선 조사, RD 체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2)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사업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점협력국가[19] 외의 국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 프로젝트 사업과 소규모 무상원조, 분쟁 및 취약국지원,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 사업효과성제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중 2개의 프로젝트 사업과 사업효과성제고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프로젝트 사업의 감액 사유 등은 다음과 같음.[20]

□ 피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역량강화사업

'피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역량강화사업'은 피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예산은 977만불임.

사업계획서에 따른 우리 정부의 주요 분담사항은 ㅇ시뮬레이션센터[21] 건축, ㅇ시뮬레이션 훈련 기자재 구입, ㅇ의과교육 전문가 파견, ㅇ초청연수 등 역량강화, ㅇ장학금 지원 등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34억 3,300만원에서 10억원(29.1%)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유는 수원국 현지의 사업수행기관 입찰이 지연됨에 따라 과업

19) 정부가 ODA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정하는 우선 대상 국가들을 의미함(아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

20) 사업효과성제고비는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내의 사업효과성제고비와 함께 후술(p.44)

21) 술기(術技) 실습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의미함.

이 순연되고 있기 때문임.

< 피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역량강화사업 감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감액 사유
3,433	2,433	△1,000	△29.1	ㅇ **(수원국 현지 시공 입찰 지연으로 과업 순연)** 당초 사업 수행기관 선정 입찰 유찰로 인한 재입찰 및 계약체결 등 사업 전반 지연 발생 ㅇ 현재 진행 중인 건축 설계 완료 예정 시점(4분기), 시공 입찰 및 착공 일정이 현지 입찰 절차에 따라 지연될 것을 감안하여 감액 신청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은 학부의학교육, 졸업 후 의학교육, 교수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의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적인(comprehensive) 성격을 지니는 바,[22] 코이카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하는 사업수행관리(PMC)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당초 2023년 10월 말에 입찰을 통해 PMC 용역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단독 입찰로 유찰됨에 따라 2023년 12월에 재공고를 실시하였고, 2024년 2분기에 계약이 체결됨.

이로 인해 사업 전체 일정이 약 8개월가량 순연되었으며,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시뮬레이션센터 시공 예산 또한 연내 착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당 부분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임.

22) 집행계획, p.27.

그러나 사업 순연은 이미 2024년 초, 즉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될 시점에도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면 이와 같은 감액 추경 상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집행 가능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은 피지 내에 국립재활센터를 설립하여 재활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의료 전문인력을 강화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예산은 1,000만불임.

사업계획서에 따른 우리 정부의 주요 분담사항은 ㅇ재활센터 건축, ㅇ의료기자재 지원, ㅇ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등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33억 8,000만원에서 10억원(29.6%)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유는 수원국 분담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수원국 정부 내부 승인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어 사업 일정이 전반적으로 순연되고 있기 때문임.

<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 감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감액 사유
3,380	2,380	△1,000	△29.6	ㅇ **(수원국 분담사항 변경 관련 내부절차 지연으로 과업 순연)** 현지 건축 설계 완료 후, 산출된 시공 예산 증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부족분에 대한 과업(예산)을 수원기관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감액 사유
				에서 분담토록 협의함에 따라 협의의사록(R/D) 수정 체결 ○ R/D 수정 및 추가 분담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수원국 정부 내부승인 절차가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시공 입찰 등 사업일정이 전반적으로 순연되어 감액 신청

자료: 외교부

2022년 8월 집행계획 수립 당시 재활센터의 시공 예산을 560만불로 예상하였으나, 설계가 완료된 2024년 11월에 시공 예산을 재산출한 결과 약 115만불이 초과되었음. 이에 따라 금액이 초과된 부분을 수원국이 부담하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올해 4월 말에 협의의사록(RD)을 체결하였음.

6월 말 현재 입찰계획서를 준비 중으로, 4분기에 착공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편성된 건축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임.[23)]

23) 당초 올해 1분기 중 시공사 입찰을 완료하고 2분기 중 착공할 계획이었음.

(3)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국가그룹(ODA) 사업은 56개 프로젝트 사업[24]과 소규모 무상원조, 분쟁 및 취약국지원,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 사업효과성제고비, 사업행정비로 구성되어 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중 1개의 프로젝트 사업와 사업효과성제고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감액 사유 등은 다음과 같음.

□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은 나이지리아 아부자기업진흥원(Abuja Enterprsise Agency, AEA) 기관역량 강화를 통하여 예비창업자 및 우량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예산은 1,200만불임.

집행계획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분담사항은 ○아부자 창업가 센터(Abuja Center for Enterpreneur, ACE) 건축, ○디지털 IT 기자재 및 행정설비·시설 지원, ○기자재전문가 및 프로그램 점검 관련 전문가파견, ○고위급 초청연수 등 역량강화, ○검수, 기초/종료 조사 및 기타 예비비 등임.[25]

24) DR콩고, 나이지리아 등 14개국 및 아프리카연합을 대상으로 함.

25)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집행계획(안), 2024.1. 코이카, p.2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27억 1,000만원에서 15억원(55.4%)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유는 수원국측 인허가 절차 지연에 따라 과업이 순연되고 있기 때문임.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감액 내역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감액 사유
2,710	1,210	△1,500	△55.4	ㅇ **(수원국측 인허가 절차 지연에 따른 과업 순연)** 건축 설계 착수에 필요한 수원국 관계기관의 건물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약 7개월 지연되어, 건축 설계, 시공 및 기자재 과업 착수 등 과업 순연 ㅇ 금년 4분기 건축 과업(설계) 착수를 위해 수원기관 변경 등 검토중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은 수원기관을 아부자 시(市) 산하 아부자기업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집행계획과 달리 아부자 시와의 소통의 어려움 및 수원기관장 교체 가능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건축 관련 절차(신축 및 기존 건물 용도변경 승인)가 지연되고 있음.

이에 코이카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재 수원기관 교체를 고려 중[26]인 상황

26) 현재 코이카는 새로운 수행기관으로 중앙정부인 중소기업청을 고려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 집행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기존 수행기관인 지역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집행계획(안), 2024.1. 코이카, p.64

위험 식별, 위험 분석								위험 대응
대분류	소분류	질문						대응 방안
외부환경 위험	① 정치적 불안정, 인도적 위기	· 수원국에 향후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있는가? - 선거, 민주화 운동 등						- 수원기관인 AEA는 지역기관으로 중앙정부 대비 상대적으로 민감도 낮음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위험등급 판단		- 선거 및 정권 순조롭게 이행된				

으로, 2025년 4분기 중으로 이를 마무리하여 수행기관(PMC)을 선정할 계획에 있음. 이에 2025년에는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인력파견과 역량강화, 직접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감액은 타당함.

다만, 건축 관련 승인절차가 지연되고 수행기관도 미선정한 상황에서 기자재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였는데, 특히 해당 사업 연차점검보고서[27]에 따르면 기자재 제공 및 설치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증액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근거 내용	것으로 미디어 평가	

27)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연차점검 결과 보고, 2025.1. 코이카, p.1

주요 연간 사업추진내용

활동	2024 추진 결과	2025 추진 목표
1.1.1. ACE 설계	진행율 : 5% 상세사항 : 수행자 선정(UNDP 약정)	진행률 : 100% 상세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출 완료
1.1.2. ACE 시공		진행률 : 30% 상세사항 : ACE 시공
1.2.1. ACE 기자재 제공 및 설치	진행율 : 0% 상세사항 : 2026년 기자재사 선정 및 착수 예정	진행율 : 0% 상세사항 : 2026년 기자재사 선정 및 착수 예정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세부 감액 내역 >

(백만원)

구 분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
▪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2,710	1,210	△1,500	△55.4
전문인력파견	1,001	0	△1,001	△100
역량강화	135	0	△135	△100
건축	1,275	800	△475	△37.9
기자재	0	410	410	순증
직접지원/프로그램	299	0	△299	△100

(4) 탄자니아(2432-406)

탄자니아(ODA) 사업은 10개 프로젝트 사업과 개발컨설팅(Deep)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중 4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감액 사유 등은 다음과 같음.

□ **탄자니아 도도마주 보건의료정보체계(GoT-HoMIS) 확산 사업**

'탄자니아 도도마주 보건의료정보체계(GoT-HoMIS) 확산 사업'은 탄자니아 도도마 지역 내 기초보건의료시설(군(district)병원, 보건지소(Health Center), 보건분소(Dispensary)) 사업대상 시설 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산과 의료정보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기초보건의료시설 운영 효율화 및 양질의 보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28] 총 사업예산은 620만불임.

집행계획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분담사항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기자재 지원, ○기초보건시설 대상 의료정보시스템(GoT-HoMIS) 구축 및 확산 지원, ○의료정보시스템 확산전략 컨설팅 제공 및 정책옹호활동 지원, ○사업관리비임.[29]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30억 8,500만원에서 16억원(55.4%)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유는 사업 신속 추진에 따른 계획 대비 조기 집행 및 사업

28) 당초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의 기획조사가 지연되고, 사업기간이 1년씩 순연됨에 따라 사업 기간 및 사업명 변경이 이루어져 사업종료가 2025년으로 연장되었음.

29) 탄자니아 도도마주 보건의료정보체계(GoT-HoMIS) 확산 사업 집행계획(안), 2021.8. 코이카, p.2~3

완료 때문임.

<탄자니아 도도마주 보건의료정보체계(GoT-HoMIS) 확산 사업 감액 내역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감액 사유
3,085	1,485	△1,600	△51.9	○ **(사업 신속 추진에 따른 계획 대비 조기 집행 및 사업 완료)** 24년 하반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비 일부를 조기집행(24년 예산 14억원 증액 집행)[30]함. 이로 인해 사업이 금년 중 조기 완료 예정인바, 금년도 배정 예산 중 24년 기집행분에 대한 집행이 불요하게 되어 감액 신청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의 연차점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자재 조달과 관련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고환율 등의 이유로 기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자재 예산을 증액하였고, 이는 사업수행 PMC 용역 최종 계약체결에 따른 현지 역량강화/컨설팅 등 일부 사업활동의 잔여 예산으로 충당했음.[31] 이에 따라 2024년 해당 사업은 본예산 대비 약 1.48배를 집행하였음.

30) 동 사업의 2024년 본예산은 2,697,000,000원이며 집행액은 3,996,000,000원임.

31) 탄자니아 도도마주 보건의료정보체계(GoT-HoMIS) 확산사업 연차점검 결과 보고, 2025.1. 코이카, p.8

○ **(기자재 조달 예산 증액)** 사업수행 PMC 용역 최종 계약체결에 따라 현지 역량강화/컨설팅 등 일부 사업활동의 잔여 예산이 발생,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기자재 조달 예산 증액 실시*

※ 세부내용 '협탄자니아-943(2023.05.23./ 표제사업 집행계획 변경안)' 내 서술된 것과 같이 러-우크라이나 사태, 고환율기조, 인플레이션 등 외부 요인으로 조달되어야 하는 ICT기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현지 기업에서 제출한 견적가격을 기초가격으로 적정 사양 및 적정 개수의 기자재 조달을 위한 예산 증액 실시

직접 사업비	변경 전(집행계획(안)) 기준		변경 후		비고
	기자재 조달(PC) 계약	2,881,262,890원	기자재 조달(PC) 계약	3,695,673,234원	814,410,344원 증액
	사업 PMC 용역	4,494,000,000원	사업 PMC 용역	3,640,597,128원	실계약금액 반영

<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22		’23		’24		’25(5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2,734	1,427	2,225	293	2,697	3,996	3,085	334

자료: 외교부

그런데, 24년도 기집행분에 대한 집행이 불요하게 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외교부의 설명과는 달리, 작년도에 조기 집행한 기자재 관련 예산은 감액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전문인력파견에 대해서 감액이 이루어졌음. 이에 당초 전문인력파견 예산이 과다계상되었던 것인지, 대폭(76.7%) 감액에 따른 사업 집행 차질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탄자니아 도도마주 보건의료정보체계(GoT-HoMIS) 확산 사업 세부 감액 내역 >

(백만원)

구 분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
▪ 탄자니아 도도마주 보건의료정보체계(GoT-HoMIS) 확산 사업	3,085	1,485	△1,600	△51.9
전문인력파견	2,085	485	△1,600	△76.7
역량강화	0	0	-	-
기자재	920	920	-	-
정보화	80	80	-	-

□ 탄자니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사업

'탄자니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사업'은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포용적 기술교육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이며[32] 총 사업예산은 600만불임.

집행계획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분담사항은 ○KOICA 지원으로 운영되는 IPOSA 센터, ○IPOSA 센터의 교육 및 훈련 제공, ○IPOSA 센터를 졸업한 청소년의 취창업 활동 진출, ○사업 실행 점검, 평가 및 성과관리임.[33]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32억 7,800만원에서 24억원(73.2%)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유는 사업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계획 변경 때문임.

<탄자니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사업 감액 내역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감액 사유
3,278	878	△2,400	△73.2	○ **(수원국측 검토 지연 및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과업 순연)** 수원국 측 사업구성요소 및 협정문안 검토 지연으로 인해 MOU 체결('23.10)이 1년 반 이상 지연되었으며, 사업 착수('24.1분기) 이후에도 수원국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센터 구축 방안이 변경되면서 사업 일정이 추가로 지연됨. 이에 사업 기간을 당초 25년 종료에서 27년 종료로 2년 연장하고 금년 사업비 일부 감액 신청

자료: 외교부

외교부와 코이카의 설명에 따르면 동 사업은 MOU 체결이 지연되어 2023년 10월에 체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2024년에 사업 착수에 본격적으로 들어

32) 당초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였으나, 수원국 요청에 따라 기존에 계획한 센터 구축 방안이 변경되면서 2025년 2월 말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함.

33) 탄자니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사업 집행계획(안), 2023.2. 코이카, p.2~3

가 2024년의 경우 본예산 대비 2.78배를 집행하며 사업이 진행되었음.

<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22		’23		’24		’25(5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50	1	4,827	2,182	1,319	3,665	3,278	0

자료: 외교부

이에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2024년에 준하여 편성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센터 구축 방안에 대한 수원국의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외교부와 코이카는 연차점검보고서에 언급된 것[34]과 같이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탄자니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사업 세부 감액 내역 >

(백만원)

구 분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
▪ 탄자니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사업	3,278	878	△2,400	△73.2
전문인력파견	302	20	△282	△93.4
직접지원/프로그램	2,976	858	△2118	△71.2

34) 탄자니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사업 연차점검 결과 보고, 2025.1. p.4

1) 집행계획 변경 이력

○ 보고 대상 연차에 해당 사항 없음. 다만, 동 사업의 실행기관은 수원기관과 함께 사업을 실행하면서 지역별 세부 사업 실행계획 조정 수요를 최종 확정 중인 바, 2025년 1분기 내 해당 사항을 반영한 집행계획 변경 검토가 요구됨.

□ 탄자니아 중학교 STEM 모델학교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중등교육 증진사업

'탄자니아 중학교 STEM[35] 모델학교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중등교육 증진사업'은 탄자니아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STEM 교육 교과 환경 개선, 교수 역량 강화 및 정책 역량 제고를 통한 탄자니아 과학기술 중등교육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예산은 600만불임.

집행계획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분담사항은 ㅇ건축, ㅇ기자재, ㅇ전문가파견 및 정책역량강화, ㅇ현지 교수역량 강화, ㅇ행정비/기타 사업관리비임.[36]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7억 2,500만원에서 26억원(55%)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유는 사업수행기관 약정서 검토 지연에 따른 약정 체결 지연 및 과업 순연임.

<탄자니아 중학교 STEM 모델학교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중등교육 증진사업 감액 내역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감액 사유
4,725	2,125	△2,600	△55.0	ㅇ **(사업수행기관 약정서 검토 지연에 따른 약정 체결 지연 및 과업 순연)** 수원국 요청에 따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수행기관 변경 및 약정 체결 협의 등으로 인해 착수 및 공정 지연이 발생하여 금년도 사업비 일부 집행이 불가하여 감액 신청

자료: 외교부

35)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의 약자임

36) 탄자니아 중학교 STEM 모델학교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중등교육 증진사업 집행계획(안), 2023.7. 코이카, p.2~3

코이카의 설명에 따르면 동 사업은 기존 수행기관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였고, 현재 수행기관 역시 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음.

이는 이미 집행계획[37]에서도 사업수행자 분석과 관련하여 제언이 있던 만큼,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할 수 있음.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감액 시 전문인력파견에 대한 예산은 21억 2,500만원이 되는데 이는 집행계획 내 예산안에서의 2025년 전문인력파견 예산인 21억 8,600만원과 가까운 점[38]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 시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탄자니아 중학교 STEM 모델학교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중등교육 증진사업 세부 감액 내역 >

(백만원)

구 분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
▪ 탄자니아 중학교 STEM 모델학교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중등교육 증진사업	4,725	2,125	△2,600	△55.0
전문인력파견	4,725	2,125	△2,600	△55.0
건축	0	0	-	-
기자재	0	0	-	-

37) 탄자니아 중학교 STEM 모델학교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중등교육 증진사업 집행계획(안), 2023.7. 코이카, p.47
"적절한 실험실습환경 구축을 위한 과학실험실 개보수 및 기자재 반입 대상 지역이 도도마와 시미유 두 지역에 넓게 퍼져있으므로 공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규모있는 유사 사업을 경험한 수행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38) 탄자니아 중학교 STEM 모델학교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중등교육 증진사업 집행계획(안), 2023.7. 코이카, p.69

동 사업은 2024년에도 본예산 대비 집행이 14.3%에 그치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 추진 관련 제반 사항을 면밀히 반영하여 집행 가능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23		’24		’25(5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300	287	3,943	564	4,725	7

자료: 외교부

□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역량강화 사업'은 탄자니아 고속도로 개발을 위한 장기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종사자 역량 강화, 고속도로 사업 개발 가이드라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예산은 500만불임.

집행계획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분담사항은 ㅇ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ㅇ역량강화, ㅇ고속도로 사업 필요 기자재 지원, ㅇ사업관리, 평가 등임.[39]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6억 9,000만원에서 14억원(82.8%)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유는 PMC 선금 집행에 따른 사업 감액 신청임.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 감액 내역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감액 사유
1,690	290	△1,400	△82.8	ㅇ **(PMC 선금 집행에 따른 사업 잔액 감액 신청)** 집행계획 수립('25.6.) 이후 2분기 중 MOU 체결 예정임. 이에 따라 PMC 입찰은 4분기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에는 PMC 용역비 선금만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 미집행 잔액 감액 신청

자료: 외교부

코이카의 설명에 따르면 동 사업은 집행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올해는 전체 용역 수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선금 외에는 미집행 잔액이 예상되어 감액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39)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 집행계획(안), 2024.1. 코이카, p.2~3

2024년 1월에 발표된 동 사업의 집행계획안[40]에는 사업 집행계획 수립이 2024년 3분기, 수행기관 선정이 2024년 4분기임을 고려할 때 사업 진행에 상당한 지연이 있었다고 판단됨.

이에 2025년 8월에 예정되었던 탄자니아 워크숍 OJT가 취소됨에 따라 역량강화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수행기관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지원/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은 타당함.

40)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 집행계획(안), 2024.1. 코이카, p.79

<표 27. 일정(안)>

활 동	2024				2025				2026				2027				2028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실시협의 및 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PMC 선정			■	■																
–실시협의 및 사업 집행계획 수립			■																	
–PMC 선정				■																
1.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	■	■	■	■	■	■	■	■	■	■	■	■	■		
1.1 고속도로 장기종합 노선망 계획 수립					■	■	■	■	■	■	■	■	■	■						
1.2 고속도로 개발 실행계획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노선 선정							■	■	■	■	■	■	■	■	■	■	■	■		
2.역량강화							■	■	■	■	■	■	■	■						
2.1 고속도로 가이드라인 개발							■	■	■	■	■	■	■	■						
2.2 고속도로 개발 인적 역량 향상							■ (1)		■ (2)		■ (3)				■ (4)					
3. 고속도로 사업 필요 기자재 지원									■		■		■		■					
4. 사업관리, 평가 등 (예비비)					■	■	■	■	■	■	■	■	■	■	■	■	■	■	■	■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 세부 감액 내역 >

(백만원)

구 분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
▪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	1,690	290	△1,400	△82.8
전문인력파견	1,105	290	△815	△73.8
건축	520	0	△520	△100.0
기자재	0	0	-	-
직접지원/프로그램	65	0	△65	△100.0

또한, 올해 4분기에 예정된 수행기관 선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선금 집행마저 불가한 상황인바, 사업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사업효과성제고비

사업효과성제고비는 사업 전 단계에 걸쳐 투입되는 공통성 경비로, 사업수행 이전 단계에서 사업형성 및 예비조사 등을 실시하는 형성기획비와 사후점검 등 사업수행 이후 단계를 지지원하는 사후관리비, 각종 건축관리비나 전문계약직 고용 등에 소요되는 수행지원비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효과성제고비 개요 >

구분	세부구분		설명
형성기획비	사업발굴 단계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및 섹터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우량 사업 발굴 및 형성
	예비조사 단계		형성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예비조사를 거친 후 사업심사 상정
	사업기획 단계		사업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기획을 통해 사업 세부 디자인 및 모니터링 지표 개발, 위험요소 사전 관리
사후관리비	사후점검		사업종료 이후 모니터링 및 평가비, 유지보수 및 현장관리, 위험관리 등을 위한 기타 경비
	사후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료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추가 지원
수행지원비	수행지원	건축관리비용	건축사업의 설계 전 단계 및 시공 후 유지보수 단계의 투입을 위한 건축관리 비용
		기타 비용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성과 확산 등을 위해 공통으로 투입하는 경비
	계약직 인건비		개별 사업 단위의 투입보다 섹터 단위의 투입이 효율적인 본부 전문 계약직 활용비

사업효과성제고비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중동CIS지역 일반협력국가그룹(ODA) 내에 편성되어 각각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프리카지역, 중남미지역, 중동CIS 지역에서 추진되는 ODA 사업에 사용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이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과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사업에 편성된 사업효과성제고비가 감액편성되었음.

< 사업효과성제고비 감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3,648	78,648	△5,000	△6.0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업효과성제고비	18,219	15,219	△3,000	△16.5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78,966	173,966	△5,000	△2.8
아프리카지역 사업효과성제고비	10,951	7,451	△3,500	△32.0

사업효과성제고비의 감액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아프리카지역을 합하여 형성기획비 22억원, 사후관리비 30억원, 수행지원비 13억원이 감액되었음.

< 사업효과성제고비 감액 상세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프리카지역			감액 계(A+B)
	'25 본예산	'25 추경안	감액 (A)	'25 본예산	'25 추경안	감액 (B)	
형성 기획비	10,353	8,353	△2,000	4,791	4,591	△200	△2,200
사후 관리비	6,983	5,983	△1,000	4,560	2,560	△2,000	△3,000
수행 지원비	883	883	-	1,600	300	△1,300	△1,300
계	18,219	15,219	△3,000	10,951	7,451	△3,500	△6,500

외교부가 제시한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형성기획비는 내년도(2026년) 신규사업에 대한 조사비용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93개 사업을 외교부에 신청하였으나, 조사대상 신규사업이 82개 사업으로 결정되어, 감소한 11개 사업에 대한 조사비용 약 13.8억원을 감액하여야 하고,

이 외에도 계획은 하였으나 실제 조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주재국 상황 등으로 조사횟수가 줄어드는 등 집행 소요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이 필요하며,

사후관리비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아프리카지역 사업 중 올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되는 사업이 총 21개 사업으로, 전년도 32개 사업보다 11개 사업이 감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예산 31억원의 불용이 예상되고,

수행지원비는 수원국의 취약한 거버넌스, 현지의 치안·정세 불안 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개도국의 건축 환경에 따라 지역 건축관리업체(CM) 선정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고, 지역 CM 선정 이후에도 개별 국별협력사업의 건축 업무 지연에 따라 CM 파견 지연도 연동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행지원비 최대 13억원의 불용이 예상된다는 의견임.

이와 같은 불용은 사업효과성제고비가 조사·사후관리·수행지원 등 여러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고, 다수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임에 따라 예산 편성 시점에서 집행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수원국의 현지 사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사유는 매년 유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참고로, 2024년에도 사업효과성제고비에서 조정 감(減)과 미교부가 발생하였는데, 2024년도에 조정과 미교부를 통하여 감액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아프리카지역 사업효과성제고비가 63억 5,700만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감액하는 사업효과성제고비(65억원)와 유사한 수준임.

< 사업효과성제고비 집행 현황(2024) >

(단위: 백만원, %)

	본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액	미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율 (B/A)
아시아 태평양	18,219	100	△1,613	△2,981	13,725	13,071	655	71.7
아프리카	10,951	-	△977	△786	9,188	7,851	1,337	71.7
중남미	4,033	-	60	-	4,093	3,974	119	98.5
중동CIS	4,700	-	-	△1,246	3,453	3,447	6	73.3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지난해와 올해 모두 사업효과성제고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해는 조정 및 미교부 방식으로,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집행이 어려운 금액을 감액하려는 상황인바,

향후 사업효과성제고비에 대한 예산 산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글로벌연수

글로벌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자,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을 국내에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단기연수에 해당하는 국별연수, 다국가연수, 특별연수와 학위연수에 해당하는 석사연수, 박사연수로 연수과정이 이루어져 있음.

해당 사업은 ①연수과정 운영비 ② 연수지원경비 ③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④ 연수센터지원 ⑤사업행정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연수과정 운영비 중 국별연수와 다국가연수가 각각 30억원, 20억원 감액편성되었음.

< 글로벌연수 감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5 본예산	'25 추경안	증감	
글로벌연수(ODA)		67,973	62,973	△5,000	△7.4
	국별연수	30,384	27,384	△3,000	△16.5
	다국가연수	6,105	4,105	△2,000	△32.8

외교부와 코이카에 따르면 감액 사유는 ① 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상반기 연수생 선발 과정에 적격 연수생 미선발과 ② 수원국 정세 불안 및 정권 교체, 거버넌스 변화와 같은 수원국 내부 상황 등 발생으로 취소 완료 및 취소 우려 사업 발생임.

위와 같은 사유는 연수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예상되는 불용을 미리 반납

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반영하지 못했음.

< 2025년 글로벌연수 내 旣 취소 사업>

연번	사업명 및 기간	계획인원	연수기관	사유
1	키르기스스탄 도시회복력을 위한 기후환경기술 활용 역량강화('24-'26)	20명	국제기후환경센터	해당 지자체(광주광역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따른 조직 전면 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라 연수사업 운영부서(국제교류업무) 해산으로 사업추진 불가
2	튀니지 꽃게 어로 기술 역량강화('24-'26)	20명	국립수산과학원	수원국 정세 및 통발어업 안전사고 위험성 등 연수사업 운영상 위험 우려
3	콜롬비아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 기술 역량강화('24-'26)	20명	국립수산과학원	대규모 자연재해(지진, 산불) 및 치안 문제 등 수원국 정세·환경 불안으로 원활한 참여 불가

상기 취소사업중 '키르기스스탄 도시회복력을 위한 기후환경기술 활용 역량강화'의 경우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이미 2023년 5월 공공기관 통합조례가 통과[41]되며 예측할 수 있던 사안으로 연수기관이 구조개편의 대상임을 사업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감안했어야 함.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취소된 사업 외에도 일부 사업의 취소가 우려되며, 2025년 연수과정 중 상반기 현재 진행된 사업별 참가인원은 계획 대비 약 1.2명 결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향후에도 유사 수준으로 우려된다고 함.

41) 공공기관 통합조례 시의회 통과...광주시, 구조혁신 본격화, 광주광역시, 2023.5.11.

그러나 취소가 우려된다고 하여 해당 연수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였을 경우 연수가 취소되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연수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계획 대비 참가인원의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를 예산안 편성 당시에 반영하였어야 함.

2024년의 경우 국별연수 및 다국가연수 전체 247개 과정 중 7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글로벌연수 사업 본예산 673억 7,800만원 중 638억 8,9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또한, 국별연수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모두 본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컸음.

< 국별연수 및 다국가연수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본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액	미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율 (B/A)
'23	글로벌 연수	52,473	45	-	△556	51,962	51,128	834	97.4
	국별	20,727	-	1,850	△205	22,372	22,197	175	107.0
	다국가	6,412	-	800	△205	7,007	6,948	59	108.3
'24	글로벌 연수	67,378	404	-	△416	67,366	63,889	3447	94.8
	국별	26,112	-	2,800	-	28,912	28,181	731	107.9
	다국가	8,624	-	△2,030	△192	6,402	6,030	372	69.9

출처: 코이카

코이카의 설명에 따르면 2025년 현황점검 결과 이미 취소된 3개 사업 외에도 일부 사업의 취소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를 고려하면 감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액수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베트남 정부조직 개편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중앙부처 (Ministries)	(18개) 국방부, 공안부, 외교부, 법무부, 재무부, 산업무역부, 노동보훈사회부(노동부), 교통부, 건설부, 정보통신부, 교육훈련부, 농업농촌개발부, 기획투자부, 내무부, 보건부,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자연환경부	(14개) 국방부, 공안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부, 교육훈련부 문화부, 산업무역부, 종교민족부(신부처 설립) - 재무부+기획투자부 → 재무부 - 교통부 + 건설부 → 건설부 - 자연환경부 + 농업부→ 농업환경부 -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부 - 내무부 + 노동부→ 내무부
중앙부처급 기관 (Line-Ministries)	(4개) 총리실, 감찰원, 중앙은행, 민족위원회	(3개) 총리실, 감찰원, 중앙은행, (민족위원회 폐지)
정부산하 기관	(10개) 베트남 방송국, 베트남 라디오 방송국, 베트남 연합뉴스, 베트남 사회과학 아카데미, 베트남 과학기술 아카데미, 베트남보험사, 호치민주석묘관리반, 국영기업의 국가자본관리위원회, 하노이국가대, 호치민국가대	(5개) 베트남 과학기술 아카데미, 베트남 사회과학 아카데미, 베트남 방송국(VTV), 베트남 라디오 방송국, 베트남 연합뉴스

자료: 코이카